



##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 번역문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학습용 번역(pedagogical translation)의 관점에서\*

김지영 (서울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ne 10, 2025  
Revised: July 18, 2025  
Accepted: August 22, 2025

Kim, Ji-young  
Researcher, The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kaylakim24@snu.ac.kr](mailto:kaylakim24@snu.ac.kr)

\* This paper is based on survey data from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A Study of the Textual Characteristics and Reader Perceptions in Pedagogical Translations: Focusing on English-Korean Translation Patterns in EBS-CSAT Textbooks" submitted to Ewha Womans University in December 2024.

### ABSTRACT

**Kim, Ji-young. 2025.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ranslations in CSAT-linked EBS textbooks: A pedagogical translation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5, 1257-1280.**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perceive and utilize Korean translations of English passages in CSAT-linked EBS textbooks. Based on the frameworks of pedagogical translation and expectancy norms, it explores the educational value of these translations beyond their basic function as comprehension aids. Surveys of 79 students and 26 teachers reveal distinct usage patterns: students primarily rely on translations for test preparation and grammar reference, while teachers use them as instructional scaffolds. Students questioned their clarity and effectiveness in improving reading comprehension, though both groups acknowledged certain benefits such as vocabulary acquisition and time efficiency. A notable divergence in expectancy norms was observed: students favored source-text oriented translations that preserve original structure, whereas teachers preferred target-text oriented ones that prioritize fluency and coherence. This contrast suggests a need for dual-layered translations—literal for structural analysis and paraphrased for contextual understanding—to promote independent independent reading and metacognitive skills. The findings offer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policy, material design, and future research on the role of translation in EFL reading instruction.

### KEYWORDS

Pedagogical translation, EBS-CSAT prep books, student and teacher perceptions, expectancy norms, Translation in English education,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 1. 서론

영어 독해 교재에 실린 번역문은 오랜 기간 단순한 학습 보조자료로 간주되며, 학문적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이는 과거 외국어 교육에서 번역이 어휘·문법 위주의 구시대적 교수법으로 폄하되며 왔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Stiefel 2009). 그러나 의사소통 역량과 문화 간 중재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학습용 번역(pedagogical translation, PT)의 교육적 잠재력이 재조명되고 있다(Cook 2010, Laviosa 2014, Widdowson 201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DGT 2013)이 번역을 읽기·쓰기·듣기·말하기에 이어 '제5의 언어 기술(fifth language skill)'로 명명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번역은 언어 간 코드 전환을 넘어 텍스트적·인지적·사회문화적 맥락을 아우르는 고차원적 활동으로서(Yang and Li 2021), 원문과 번역문의 병렬 텍스트를 분석하는 활동 또한 L1-L2 간 구조와 의미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전략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다(Anderson 2005, Hsiao and Oxford 2002).

한국의 EFL 환경에서 번역은 모국어를 매개로 한 필연적 학습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은 이러한 학습용 번역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수능 영어 영역에서 약 65%가 독해 문항으로 구성되는 만큼 영어 독해력은 대입의 핵심 경쟁력이며, 이에 따라 EBS 연계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시중 독해 교재가 수험 준비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매출 상위 20개 출판사 중 18곳이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를 발행할 정도로 영어 독해 교재의 출판시장 비중이 크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23). 그중 EBS 연계 교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92% 이상이 활용하는 필수 학습 자료로 자리매김하였고(박지은, 임현우 2017), 그 번역문 또한 영어 독해 학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능-EBS 연계 정책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이 교재 내 번역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심지어 번역문을 통째로 암기하는 왜곡된 학습 관행이 언론을 통해 거듭 지적된 바 있다(윤석만 2014, 유소연, 최원국 2020, 한지수, 이영희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독해 교재의 구성, 활용 양상,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교재에 수록된 한국어 번역문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독해 교재에 번역문이 함께 제공됨에도, 번역문은 단순한 '정답 확인용 직역' 수준에 머물며 교육학적·번역학적 분석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교재 번역문이 단순한 시험 대비용 자료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번역학적 관점에서도 교재 번역문은 일반 전문 번역처럼 매끄럽게 완결된 글이 아닌 단지 영어 원문의 이해를 돕는 단순 보조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영훈(2019)은 외국어 학습 맥락에서 '해석'이 어휘 대응 위주의 뜻이 잘 통하지 않는 직역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번역은 언어적·인지적·문화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활동이며(Yang and Li 2021), 원문(ST)과 번역문(TT)의 비교·분석은 학습자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심화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Mellinger 2019, Tirkkonen-Condit 2005). 특히 한국과 같은 독해 중심의 EFL 환경에서는 모국어가 사고와 이해의 필연적 매개로 작동하기 때문에(Chan 2015), 독해 교재 번역문은 초기 이해의 스캐폴딩(scaffolding)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독립적 읽기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van de Pol et al. 2010, Vygotsky

1978). 이러한 점에서 번역문을 단순한 보조자료로 취급하는 기존 시각을 넘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영한 번역문을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 및 입시 제도의 dk특수성이 반영된 학습용 번역 사례로 보고,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번역문에 대한 수용자 중심의 평가를 통해 기대 규범(expectancy norms)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 독해 교육에서 학습용 번역문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성과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은 학습자와 교사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 2) 학습자와 교사들은 해당 번역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 3) 학습자와 교사들은 해당 번역문에 대해 어떠한 기대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번역능력 모델에 기반한 학습용 번역의 교육적 재해석

과거 외국어 교육에서 번역은 어휘·문법 중심의 낡은 교수법으로 간주되며 실제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Anderson 1993, Fotos 2005, Lamie 2000, Li 1998, Yu 2001). 이러한 인식에 따라 번역은 영어교육 현장에서 점차 배제되었으나, 문화 간 중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언어 교육 패러다임이 부상하면서 학습용 번역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었다(Cook 2010, Laviosa 2014, Pym and Ayzvazyan 2017, Widdowson 2014, Zimányi 2017). 특히 다중언어 전환(multilingual turn)으로 인해 언어 학습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면서(Conteh and Meier 2014), 번역은 모국어와 외국어의 언어 전환 연습을 통해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목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언어·문화 간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외국어 학습법으로 비추어지고 있다(Ortega 2014).

번역은 단순한 코드 전환을 넘어서, 텍스트적·인지적·사회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활동이다(Yang and Li 2021). 이러한 번역의 다층적 특성을 반영하며 1990년대 이후 폭넓게 연구된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 모델은 학습용 번역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Yang and Li(2021)는 PACTE(2000), Göpferich(2009) 등이 제시하였던 기존 모델들을 기반으로, 교육을 중점에 둔 새로운 번역능력 모델(Pedagogical Model of Translation Competence)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번역 능력을 이중언어(bilingual) 능력, 화용적(pragmatic) 능력, 전문성(profession-related) 능력, 전이(transfer) 능력, 전략적(strategic) 능력으로 구성하며, 특히 학습자의 이중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중언어 능력은 L1과 L2의 구조와 의미 체계를 비교하며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언어 간 차이와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언어 능력의 함양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수 있다(Yang and Li 2021, pp. 131-132). 화용적 능력은 문맥적

단서와 어휘·문법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으로(Yang and Li 2021, p. 127), 문장 간 논리적 연결을 파악하고 추론을 통해 정답을 도출하는 한국의 일반적인 독해 교재의 문제 유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전략적 능력은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고 자기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역량으로 정의되며, 이는 다수의 SLA 연구에서 제시된 언어 습득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Anderson 2005, Hsiao and Oxford 2002). Yang and Li(2021, p. 130)는 이러한 전략적 능력을 O'Malley and Chamot(1990)의 분류에 따라 인지적 전략과 메타인지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인지적 전략은 원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정신적 처리 과정으로 정의되는 바, 이는 L2 학습자의 독해 과정과도 밀접한 유사성을 지닌다.

Tirkkonen-Conditt(2005)는 전략적 능력의 한 요소로서 원문에 대한 과도한 직역을 피하기 위한 자기 모니터링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곧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성찰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번역 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이 단순히 원문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역 과정을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안수경, 남원준 2024).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번역능력 중 전략적 능력은 단지 번역 과업에 국한되지 않고, L2 학습자의 독해 능력 함양에도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번역능력 모델은 단지 전문 번역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L2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수 틀을 제공한다. 특히 독해 중심의 한국 영어교육 환경에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아직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번역 수행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Yang and Li 2021, p. 131), 기번역된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 활동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번역능력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학습자가 ST-TT 병렬 텍스트를 비교·분석하는 활동이 단순히 원문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해 과정에서 원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접근은 다음 절에서 다룰 스캐폴딩으로서의 병렬 텍스트 활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 2.2 스캐폴딩 관점에서 본 병렬 텍스트와 EBS 교재 번역문

한국의 독해 중심 EFL 환경에서는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번역은 불가피한 학습 전략이자 실질적인 교수·학습 도구로 기능한다.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활발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병렬 텍스트로, 그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된다.

통상 학습용 번역은 학습자가 직접 번역 과업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이해되나, 학습용 번역은 교사의 설명적 번역이나 학습자의 내면적 번역(interior translation)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Lavault(1985)는 이를 ①교사의 설명적 번역, ②학생의 구두 번역, ③번역 연습(외국어에서 모국어로의 해석), ④작문(모국어에서 외국어로 옮기는 연습)으로 세분화하였으며(김소정 2016), 한국의 중등 영어교육에서는 주로 전자의 두 유형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DGT(2013) 또한 ST-TT 병렬 텍스트 비교 활동을 학습용 번역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며, 기번역 텍스트의 활용이

주요한 교수·학습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Cook(2010)가 도입한 ‘TILT(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개념, Pintado(2018)가 PT의 하위 범주로 포함한 코드스위칭(code-switching) 및 내면적 번역과도 궤를 같이한다.

병렬 텍스트의 활용은 특히 스캐폴딩(scaffolding)의 관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조명될 수 있다. 스캐폴딩은 비고츠키(Vygotsky 1978)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이론에 기반한 교수 전략으로, 학습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임시적 지원을 통해 점차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때 스캐폴딩은 우발적 지원(contingency), 지원의 점진적 축소(fading), 그리고 책임 전이(transfer of responsibility)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ESL/EFL 학습자의 독해력 향상과 학습 동기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Zhang and Singh 2025). 이러한 관점에서 독해 교재 번역문은 학습 초기에는 원문 이해를 돕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점차 그 의존도를 줄여 독립적 독해 능력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를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번역 기반 글로스(gloss)의 어휘 습득 및 독해력 향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Watanabe(1997), Yoshii(2006), Choi(2016)의 연구는 L1 번역 기반의 정보 제공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에 실질적인 인지적 지원을 제공함을 보고하였다. Murphy Odo(2021)는 번역문 기반의 독해 활동이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부합하는 L2 텍스트 입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행간(interlinear) 및 병렬(parallel) 번역 텍스트를 통한 실험을 통해 그 교육적 잠재력을 제시하였다. 병렬 텍스트 활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교수 전략으로는, ST-TT 비교를 통한 주제어 추출 및 수정 활동(Gaspar 2009), 기번역문을 활용한 다층적 학습 활동(Cook 2010), 그리고 원문 이해 및 어휘 습득을 위한 번역문 반복 읽기(이화자 2017)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병렬 텍스트의 활용은 한국의 수능 대비 학습 환경에서 특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교사가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 EBS 수능 연계교재의 지문이 방대하고 연계 정책 자체가 학습자들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번역문이 포함된 병렬 텍스트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EBS 번역문 자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현저히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영어 지문의 어휘 수준, 이독성, 문항 난이도 등 정량 분석에 집중해 왔으며(강동호 2020, 2021, 김미혜, 이성원 2018, 양수영, 이동주 2019, 이현우 2020, 조민수, 박은수 2016), 정성적 연구 역시 교재 사용 실태나 연계 정책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문해란 2017, 박지은 2017, 안찬기 2015, 이병천 외 2015, 지혜련 2017). 박지은과 임현우(2017)는 학생과 교사의 연계 교재 활용 실태를 조사하며 번역문에 대한 인식을 일부 언급하였지만, ‘해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라는 문항에 고3 학생 전 집단이 부정적으로 응답했음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종합하면,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은 학습용 번역의 확장된 형태이자 스캐폴딩 도구로서, 한국의 수능 대비 중심 학습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충분한 교육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병렬 텍스트를 통해 원문 구조와 어휘·문법적 연결, 의미 층위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해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단순한 직역 확인을 넘어, 원문 분석 후 의미 추론, 독립적 독해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2.3 번역문 수용자의 기대 규범

이상의 논의는 학습용 번역문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번역문이 어떠한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며, 이는 수용자의 기대 규범(expectancy norms)에 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은 수능 대비라는 명확한 목적을 지닌 수용자 중심의 번역물이므로, 학습자와 교사의 관점에서 그 기대 규범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대 규범은 독자가 “번역은 이래야 한다”고 기대하는 형식·스타일·장르 적합성 등 산출물(product)의 형식적·기능적 특성에 관한 집합적 규범을 의미한다(Chesterman 1997). 이러한 규범은 특정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번역 행위의 일관성(regularities)을 반영하며(이상원 2004), 번역사들을 위한 일종의 실행 지침으로 기능한다.

Toury(1995)는 번역을 규범 지배적 행위로 보며, 번역자가 ‘초기 규범(initial norm)’ 단계에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adequacy)과 목표 언어에 적합한 번역(acceptability) 사이에서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pp. 56-57). 이러한 선택은 이후 번역 정책 및 중역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 규범(preliminary norms), 생략·첨가·표현 선택 등 구체적 번역 전략을 지배하는 실행 규범(operational norms)에 반영된다.

Chesterman(1997)은 Toury의 개념 체계를 확장하여 번역의 과정 규범(process norms)과 산출물 규범(product norms)을 구분하였고, 후자를 곧 기대 규범이라 명명하였다. 기대 규범은 독자가 속한 사회의 번역 전통,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요인, 권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독자와 관련 권위자 간 기대가 충돌할 경우 그 부담은 번역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p. 64). 이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습용 번역문 분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EBS 교재 번역문은 “영문 구조에 충실한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의역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따른다. 이는 ST 지향의 충실성 규범을 우선시한 방식이지만, 실제 수용자인 학습자와 교사는 정확성뿐 아니라 자연스러움, 시험 대비 효율성 등 TT 지향적 특성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용자 기대와 제도적 규범 사이의 간극은 번역문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번역문의 특성으로 정확성, 가독성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Bijani et al.(2014)은 소설 번역, Liu(2015)는 의약품 번역, 강경이(2015)는 아동청소년 문학 번역에서 수용자 기대를 도출하였고, 이상원(2004)과 최효은(2016)은 각각 출판 번역과 특허 번역에서 충실성-가독성의 균형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원문 의미 보존과 목표 언어에서의 자연스러움·가독성이라는 두 축에서 기대를 형성함을 보여주며, 본 연구 설계의 분석 틀(ST 지향 vs. TT 지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EBS 교재 번역문을 대상으로 학습자와 교사의 기대 규범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기존 연구들은 교사나 정책 차원의 인식에 국한되었으며, 송지현(2015)과 이정원(2019)은 번역 활용 실태나 학습자 인식을 다루었으나 교재 번역문에 대한 인식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EBS 교재 번역문이 수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학습용 번역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규범이 작동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대 규범 이론과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ST 지향 vs. TT 지향’의 프레임틀을 바탕으로,

EBS 교재 번역문에 대한 학습자 및 교사의 기대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재 번역문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EBS 수능 영어 연계 교재 번역문을 참고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 79명과 교사 26명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다<sup>1</sup>. 응답자의 인적 사항은 학습자와 교사로 구분하여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1은 학습자 응답자 집단을 2023년도 수능시험 영어 등급과 계열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해당 응답자들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학부 신입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독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sup>2</sup>.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등급별 분포에 따르면 1등급(7.83%)과 2등급(18.67%)은 전체의 약 26.5%, 3등급(21.75%)과 4등급(18.87%)은 전체의 약 40.6%를 차지한다. 본 연구의 응답자 집단이 이들 상위 등급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포함하는 수준이므로 설문 결과가 일정 수준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1. 학습자 응답자 집단의 분포

영어등급/계열	인문계	자연계	소계
1~2등급	20 (25.3)	38 (48.1)	58 (73.4)
3~4등급	2 (2.5)	19 (24.1)	21 (26.6)
소계	22 (27.8)	57 (72.2)	79 (100)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sup>1</sup> 본 설문은 수능 이후 시점(3~4월)에 실시되었기에 일부 응답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과 표본의 대표성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sup>2</sup> 학습자가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을 활용하여 독해 학습을 한 경험이 있는지가 설문 대상자의 가장 핵심 요건인바, 설문 시점에 EBS 연계 교재를 갖 접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보다는 비교적 최근까지 해당 교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한 대학 신입생이 조사 대상으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할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 각각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설문 대상 섭외 및 설문 수행 면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부생만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교사 집단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재직기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표본 수는 26명으로, 스노우볼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에 기반한 섭외 방법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기간 동안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가 주로 30대와 40대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본 설문조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표 2. 교사 응답자 집단의 분포

재직기간/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소계
5년 미만	1 (3.8)	2 (7.7)	0 (0.0)	0 (0.0)	3 (11.5)
5~10년	0 (0.0)	7 (26.9)	1 (3.8)	0 (0.0)	8 (30.8)
11~20년	0 (0.0)	5 (19.2)	5 (19.2)	0 (0.0)	10 (38.5)
21~30년	0 (0.0)	0 (0.0)	4 (15.4)	1 (3.8)	5 (19.2)
소계	1 (3.8)	14 (53.8)	10 (38.6)	1 (3.8)	26 (100)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 3.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EBS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한 수용자들의 활용 양상, 인식 및 기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에 따라 달리 설계하였으며, 총 52문항(학습자용)과 50문항(교사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개방형 문항은 학습자 설문지에 7문항, 교사 설문지에 8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폐쇄형 문항이다. 질문에서 강조하거나 주의를 환기해야 하는 부분에는 밑줄 긋기, 굵은 글씨체 사용, 기울여 쓰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의 활용 현황, 인식, 기대, 응답자 인적 사항 등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습자와 교사 대상 설문지에 모두 해당하며, 각 집단의 경험과 역할에 맞추어 세부 문항을 조정하였다. 아래의 표 3은 설문지의 문항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소주제는 수용자의 번역문 활용 상황, 시점,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 소주제는 명료성, 자연스러움, 난이도 등 번역문의 특징에 대한 의견과 번역문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세 번째 소주제는 번역문에 대한 기대 규범을 어휘 난이도, 문장 길이, 직역 또는 의역, 어순 등의 항목별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 규범이라는 용어 대신 ‘희망 사항’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영어 독해 숙달도 및 기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문항 유형은 일부의 객관식과 개방형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5점 척도의 리커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함으로써 응답자의 실제 수용 양상과 인식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지 전반에는 번역문 대신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번역본’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소주제	문항 번호		문항 예시	
	학습자	교사		
1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의 활용 현황	번역문 참고 빈도, 대체 수단	1-3	1-3	“EBS 수능 영어 연계 교재를 활용하여 학습할 때 한글 번역본을 참고한 적이 한 번 이상 있습니까?” (학습자)
	번역문 참고 상황	4-8	4-8	“자습할 때(학교/학원/과외 숙제나 수업 예습·복습 포함) 본다” (학습자) “수업 준비할 때 참고한다” (교사)
	번역문 참고 경우	9-17	9-15	“문제를 틀렸을 때 본다” (학습자) “문제가 모호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느껴질 때 본다” (교사)
	번역문 참고 방식	18-21	16-19	“이해가 되지 않는 영어 문장의 번역만 확인한다” (학습자)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의 번역만 본다” (교사)
2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한 인식	번역문 참고 시 얻는 효과, 참고 의향	22	20-21	“EBS 수능 영어 연계 교재의 한글 번역본이 전반적으로 영어 독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습자) “EBS 수능 영어 연계 교재의 한글 번역본을 앞으로도 계속 참고할 생각이신가요?” (교사)
	번역문의 구체적 특징	23-27	22-26	“해석이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다” “문장이 복잡하지 않고 길어도 적절하다” (학습자, 교사 문항 동일)
3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한 기대	번역문 참고 시 얻는 효과 (영역별 상세)	28-35	27-35	“영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 “학습자의 수능시험 영어과목에 대한 학습동기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교사)
4 응답자 인적 사항	희망하는 번역문의 특성	36-44	36-45	“영어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따르면 좋겠다” “뜻이 잘 통하도록 자연스러우면 좋겠다” (학습자, 교사 문항 동일)
	응답자 정보(성별, 나이, 계열, 모의고사 등급, 독해 수준 등)	45-52	46-50	“가장 최근의 모의고사 또는 수학능력시험에서 귀하의 영어 영역 등급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학습자) “귀하께서는 영어 중등교사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교사)

### 3.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목적 표집, 스노우볼 표집, 지원자 표집을 혼합하여 설문 대상을 선정하였다. 학습자 표본은 EBS 연계 교재를 갖 접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는 비교적 최근까지 해당 교재를 장기간 접한 대학교 신입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두 개 학과의 홈페이지에 모집 문건을 게재하고, 교양 수업 수강생에게도 직접 설명 후 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 링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총 9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중 79명의 설문을 최종 회수하였다.

교사 표본은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한 수능 대비 수업을 실제로 운영 중인 일반계 고등학교 고학년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 모집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연구자의 지인을 중심으로 스노우볼 방식으로 표본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총 26명의 교사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설문 작성과 배포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이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을 활용하는 양상과 번역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및 기대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들의 항목별 비교를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응답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번역문 사용 양상

먼저 학습자와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설문 결과, 학습자와 교사 모두 번역문을 비교적 자주 참고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50% 이상이 “10번 중 7번 이상 참고한다”고 응답하였다(표 4). 이는 교재 번역문이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닌 핵심 학습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교재 번역문 참고 빈도

	매번	10번 중 7번 이상	10번 중 3~6번	10번 중 1~2번	10번 중 1번 미만	전체
학습자	17 (21.5)	26 (32.9)	24 (30.4)	8 (10.1)	4 (5.1)	79 (100)
교사	8 (30.8)	6 (23.1)	5 (19.2)	4 (15.4)	3 (11.5)	26 (100)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10번 중 한 번 미만 참고하며, 최대한 참고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와 교사에게는 지양 이유와 대체 수단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에 학습자 4명 중 3명은 오히려 독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교사는 3명 중 2명이 한국어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해서 번역문 참고를 지양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체 수단으로는 학습자 3명이 교사나 동료 학생에게 질문한다고 답하였으며 같은 수의 응답자가 어학사전을 찾아본다고 답하였고, 교사 3명 중 2명 또한 어학사전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번역문의 대체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는 모국어의 도움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와 교사 집단이 주로 무슨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재 번역문을 활용하는지 대상자들의 응답을 상황, 경우, 방식의 순서로 기술한다. 그에 앞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주제별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 결과를 아래의 표 5에 제시한다.

표 5. 교재 번역문의 참고 양상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

소주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	
	학습자	교사
번역문 참고 상황	·자습할 때 참고(80.2%, 61명)	·수업 준비 시 참고(57.7%, 15명)
번역문 참고 경우	·문제를 다 풀 직후(77.6%, 59명) ·단어나 숙어, 문장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89.6%, 69명)	·문제를 다 풀 후 필요시(73%, 19명) ·매끄러운 한국어 해석을 참고하고자 할 때(77%, 20명)
번역문 참고 방식	·모르는 단어나 숙어의 뜻만 확인 (71.8%, 56명)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만 확인 (73.1%, 19명)

번역문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 학습자들은 ‘자습할 때’, 교사들은 ‘수업 준비 시’ 번역문을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상황’에서 번역문을 참고한다고 응답한 학습자(19.8%) 중 선택형 개방형 질문에 서술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들은 번역문을 통해 원문 이해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내신 대비를 위한 지문 암기, 빠른 내용 숙지 등의 목적에서도 번역문을 활용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을 서술한 교사 응답자 4명은 ‘지역 위주의 수업 해설 이후에도 답을 납득하지 못할 때’, ‘더 한국적인 다른 해석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배경지식이 필요한 지문일 때’ 등을 번역문 활용 상황으로 밝혀, 번역문을 단순 해석을 넘어 텍스트의 전반적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문을 참고하는 경우 중 시점과 관련해서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 대체로 문제 풀이 후 번역문을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원문 중심의 독해 학습 이후 번역문을 참고하는 전략적 학습 형태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특히 ‘단어나 숙어, 문장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89.6%, 69명), ‘지문의 주제나 논리 확인’(85.7%, 66명), ‘문제를 틀렸을 때’(84.4%, 65명) 번역문을 자주 활용하였다. 교사의 경우, ‘매끄러운 한글 해석 참고’가 77%(20명)로 가장 높았고, ‘단어나 숙어의 한글 대응어 확인’(69.2%, 18명), ‘문제가 모호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53.9%, 14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영어 문장의 통사적 구조 및 문법 요소 등 언어적 측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역 중심의 해석이 불가피한 교사 입장에서 전체 의미 파악을 돕는 보조 자료로서 번역문의 역할을 요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번역문의 참고 방식과 관련해서는 두 집단 모두 ‘부분 참고’를 선호하였다. 다만 학습자들은 ‘특정 문제의 번역 전체를 확인’(62.9%, 49명), ‘이해 안 되는 문장의 번역만 확인’(60.2%, 47명) 등 모든 층위에서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고 양상을 보였으나, 교사의 경우 ‘전체 번역을 확인’ 항목에는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보다 제한적이고 효율적인 참고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교재 번역문의 활용 양상은 앞서 2.2절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병렬 텍스트의 교육적 전략으로서의 체계적인 활용보다는, 수능 및 내신 대비를 위한 단기적 학습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문이 의미 추론 등을 위한 전략적 자원이라기보다 해석 확인용 정답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문 암기를 위해 번역문을 반복해서 읽는다”, “해석을 통째로 외운다”는 학습자의 개방형 응답은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 4.2 번역문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EBS 연계 교재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과 활용 효과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다. 먼저 번역문의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명료성, 자연스러움, 간결성, 논리성, 어휘 난이도 적절성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아래의 표 6과 같은 인식을 보였다.

표 6. 교재 번역문의 특성에 대한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명료성	학습자	<b>42</b> <b>(53.9)</b>	21 (26.9)	15 (19.2)	2.63 (0.98)
	교사	7 (26.9)	<b>12</b> <b>(46.2)</b>	7 (26.9)	3.00 (0.89)
자연스러움	학습자	<b>37</b> <b>(47.4)</b>	21 (26.9)	20 (25.6)	2.76 (1.02)
	교사	7 (26.9)	<b>13</b> <b>(50.0)</b>	6 (23.0)	2.92 (0.93)
간결성	학습자	<b>39</b> <b>(50.0)</b>	20 (25.6)	19 (24.3)	2.67 (1.07)
	교사	8 (30.7)	<b>13</b> <b>(50.0)</b>	5 (19.2)	2.81 (0.98)
논리성	학습자	<b>27</b> <b>(34.6)</b>	25 (32.1)	26 (33.4)	3.05 (1.02)
	교사	7 (26.9)	<b>13</b> <b>(50.0)</b>	6 (23.1)	3.00 (0.94)
어휘 난이도 적절성	학습자	14 (18.0)	29 (37.2)	<b>35</b> <b>(44.9)</b>	<b>3.39</b> <b>(0.99)</b>
	교사	4 (15.3)	10 (38.5)	<b>12</b> <b>(46.1)</b>	<b>3.31</b> <b>(0.88)</b>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학습자와 교사 모두 어휘 난이도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나(M=3.39, M=3.31), 나머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 또는 중립적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명료성’ 항목에서 학습자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은 학습자들이 해당 번역문을 독해 학습에 활용할 때 한국어 해석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3 학생들이 “해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박지은과 임현우(2017)의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학습용 번역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앞서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번역을 어휘·문법 중심의 단순한 코드 전환의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습자들이 교재의 번역문을 원문 이해를 위한 전략적 자원, 즉 의미 구성이나 담화 맥락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병렬 텍스트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EBS 교재 번역문의 활용 효과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또한 어휘, 문법 등 구체적 항목별로 응답자들의 의견을 구했으며(표 7-8), 학습자와 교사 두 집단 공통으로 독해 실력, 어휘력, 문법 실력, 논리력 및 추론 능력, 수능 영어 성적, 학습 시간 절약의 여섯 항목을 제시하였다.<sup>3</sup> 이와 함께 학습자 설문지에는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 감소’ 항목을, 교사 설문지에는 ‘수능시험 영어과목에 대한 학습동기 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양상과 성취 수준을 직접 관찰해 온 교육 전문가로서 해당 항목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응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7. 학습자 응답자 집단의 교재 번역문 효과에 대한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b>35</b> <b>(44.9)</b>	21 (26.9)	22 (28.2)	2.75 (1.11)
	21 (26.9)	16 (20.5)	<b>41</b> <b>(52.6)</b>	<b>3.29</b> <b>(1.22)</b>
교과	<b>49</b> <b>(62.8)</b>	15 (19.2)	14 (18.0)	2.27 (1.09)
	<b>34</b> <b>(43.6)</b>	18 (23.1)	26 (33.4)	2.80 (1.27)
	23 (29.5)	25 (32.1)	<b>30</b> <b>(38.5)</b>	3.04 (1.17)
	<b>46</b> <b>(59.0)</b>	10 (12.8)	22 (28.2)	2.49 (1.29)
교과 외	14 (18.0)	10 (12.8)	<b>54</b> <b>(69.2)</b>	<b>3.65</b> <b>(1.24)</b>
	61 (78.2)	13 (16.7)	4 (5.1)	1.68 (0.97)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sup>3</sup> 교사 대상 문항은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의 문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등과 같이 모든 문항에 ‘학습자의’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교사가 자신의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 입장에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응답은 교사의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수업 현장에서 관찰한 학습자의 반응과 변화를 토대로 한 평가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8. 교사 응답자 집단의 교재 번역문 효과에 대한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교과	영어 독해 실력 향상	8 (30.7)	7 (26.9)	<b>11</b> <b>(42.3)</b>	3.15 (1.05)
	영어 어휘력 향상	6 (23.0)	<b>10</b> <b>(38.5)</b>	<b>10</b> <b>(38.5)</b>	<b>3.23</b> <b>(1.24)</b>
	영어 문법 실력 향상	<b>10</b> <b>(38.4)</b>	6 (23.1)	<b>10</b> <b>(38.5)</b>	2.81 (1.36)
	논리력 및 추론 능력 향상	8 (30.7)	<b>11</b> <b>(42.3)</b>	7 (26.9)	2.85 (0.97)
	수능시험 영어 성적 향상	<b>10</b> <b>(38.4)</b>	7 (26.9)	9 (34.6)	2.88 (1.11)
교과 외	수능시험 영어과목에 대한 학습동기 향상	<b>14</b> <b>(53.9)</b>	5 (19.2)	7 (26.9)	2.38 (1.33)
	학습 시간 절약	5 (19.2)	4 (15.4)	<b>17</b> <b>(65.4)</b>	<b>3.46</b> <b>(1.07)</b>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6 (23.1)	6 (23.1)	<b>14</b> <b>(53.8)</b>	3.35 (1.13)
기타		14 (53.9)	7 (26.9)	5 (19.2)	2.38 (1.20)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질문 항목 중 교과 범주에서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 ‘영어 어휘력 향상’(M=3.29, M=3.23)에 대해, 교과 외 범주에서는 ‘학습 시간 절약’(M=3.65, M=3.46)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그 외 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자의 경우 ‘영어 독해 실력 향상’ 항목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으나, ‘수능 영어 성적 향상’ 항목에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38.5%).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교사 집단은 전자의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 경향(42.3%)을, 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 경향(38.4%)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수능-EBS 연계 정책을 전제로 연계 교재 번역문이 수능 성적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과 대조된다. 한편, 학습자들이 번역문이 독해 실력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문을 주로 시험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활용 방식이 독해 능력의 근본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번역문을 텍스트 이해를 돕는 스케폴딩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 외 항목에서 교사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3.8%로 가장 높았으나, ‘학습 동기 향상’ 항목에서는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다소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재 번역문이 자습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학습자의 독립적 학습을 돕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학습 동기를 유발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은 병렬 텍스트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수동적 수용 태도가 고착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4.3 번역문에 대한 기대 규범

마지막으로, 학습자와 교사가 EBS 연계 교재 번역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규범을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Toury(1995)의 규범 체계와 Chesterman(1997)의 기대 규범 개념에 따라 ‘ST 지향(adequacy)’과 ‘TT 지향(acceptability)’의 두 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Toury(1995)는 번역자가 초기 규범 단계에서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목표 문화의 수용성 사이에서의 선택을 통해 번역 방향을 설정한다고 보았다. ST 지향은 원문의 구조, 어휘, 의미의 보존을 중시하는 반면, TT 지향은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 가독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게 된다고 볼 수 있다. Chesterman(1997)의 기대 규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은 번역 산출물의 형식적·기능적 특성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학습용 번역문은 독해 중심 학습이라는 교육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어떠한 특성의 번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용자의 특성과 번역문의 구체적 활용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특정 텍스트 장르의 기대 규범을 ‘ST 충실성 vs. TT 가독성’의 틀로 고찰해 온 점을 반영하여, 어휘-문장-텍스트 전체의 층위에서 두 지향을 모두 포착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략 및 추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응답자가 번역 전략의 선택을 보다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과 응답 결과는 아래의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교재 번역문에 대한 기대 규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쉬운 어휘	학습자	15 (19.2)	17 (21.8)	<b>46</b> <b>(59.0)</b>	3.59 (1.18)
	교사	6 (23.0)	7 (26.9)	<b>13</b> <b>(50.0)</b>	3.42 (1.14)
짧은 문장	학습자	15 (19.2)	17 (21.8)	<b>46</b> <b>(59.0)</b>	3.63 (1.21)
	교사	6 (23.1)	4 (15.4)	<b>16</b> <b>(61.5)</b>	3.50 (1.21)
TT 지향 자연스러움	학습자	4 (5.2)	5 (6.4)	<b>69</b> <b>(88.4)</b>	<b>4.43</b> <b>(0.92)</b>
	교사	1 (3.8)	4 (15.4)	<b>21</b> <b>(80.8)</b>	<b>4.23</b> <b>(0.99)</b>
단어나 문장 추가 상관없음	학습자	<b>48</b> <b>(61.6)</b>	15 (19.2)	15 (19.3)	2.29 (1.30)
	교사	10 (38.5)	3 (11.5)	<b>13</b> <b>(50.0)</b>	3.04 (1.46)
단어나 문장 생략 상관없음	학습자	<b>57</b> <b>(73.1)</b>	8 (10.3)	13 (16.7)	2.06 (1.26)
	교사	<b>17</b> <b>(65.4)</b>	4 (15.4)	5 (19.2)	2.35 (1.23)

ST 지향	원문 어휘의 사전적 의미 교수	학습자	25 (32.0)	20 (25.6)	<b>33</b> <b>(42.3)</b>	3.20 (1.20)
		교사	<b>13</b> <b>(50.0)</b>	5 (19.2)	8 (30.8)	2.81 (1.33)
	원문 문장의 어순 교수	학습자	<b>33</b> <b>(42.4)</b>	11 (14.1)	<b>34</b> <b>(43.6)</b>	3.05 (1.28)
		교사	<b>12</b> <b>(46.2)</b>	6 (23.1)	8 (30.7)	2.73 (1.34)
	원문 요소 빠짐없이 번역	학습자	11 (14.1)	17 (21.8)	<b>50</b> <b>(64.2)</b>	3.78 (1.08)
		교사	5 (19.2)	6 (23.1)	<b>15</b> <b>(57.7)</b>	3.62 (1.17)
	기타 사항	학습자	<b>55</b> <b>(70.5)</b>	12 (15.4)	11 (14.1)	1.91 (1.30)
		교사	<b>17</b> <b>(65.4)</b>	5 (19.2)	4 (15.4)	2.12 (1.31)

Note: 괄호 안 수치는 백분율(%)임

응답 결과, 학습자와 교사 모두 ‘자연스러운 번역’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M=4.43$ ,  $M=4.23$ ). 반면, ‘단어나 문장의 생략’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이며( $M=2.06$ ,  $M=2.35$ ), 번역 과정에서의 정보 누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문의 요소가 빠짐없이 번역’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양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ST 지향 항목에서는 혼재된 경향이 나타났다. ‘원문 어휘의 사전적 의미 교수’ 항목에 대해 학습자는 긍정적, 교사는 부정적 응답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자습 시 사전적 의미와 문장 구조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문 문장의 어순 교수’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반응이 양분된 반면, 교사 집단은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선호하는 동시에 원문 요소의 완전한 보존을 기대하는 다소 상충된 기대 규범으로 보인다. 이는 복수 선택이 가능한 리커트 척도의 특성과 더불어, 교재 번역문이라는 장르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수용자들은 번역문을 완결된 텍스트로 인식하면서도 필요시 ST와의 대조를 통해 효율적 학습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중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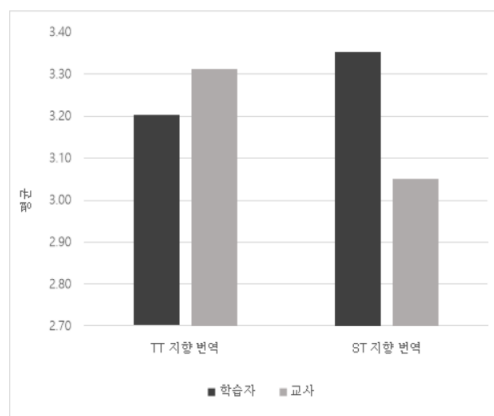


그림 1. 교재 번역문에 대한 기대 규범 비교

TT 지향과 ST 지향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을 비교한 결과(그림 1), 교사는 TT 지향 번역을, 학습자는 ST 지향 번역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sup>4</sup> 이러한 선호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응답자의 ST 지향 문항과 TT 지향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 점수를 산출한 뒤, TT 지향 점수를 ST 지향 점수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H<sub>0</sub>: 교사 (TT 지향 점수)/(ST 지향 점수) = 학습자 (TT 지향 점수)/(ST 지향 점수)

-H<sub>a</sub>: 교사 (TT 지향 점수)/(ST 지향 점수) > 학습자 (TT 지향 점수)/(ST 지향 점수)

분석 결과, 교사와 학습자 간의 평균 비율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교사의 TT 지향 비율이 더 크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t = 1.90, p = .03$ ). 이는 교사 집단이 학습자 집단에 비해 TT 지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sup>5</sup>

이러한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는 번역문 활용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는 번역문을 시험 대비와 정답 도출을 위한 자료로 인식하는 반면, 교사는 번역문을 의미 전달 및 수업에 활용되는 교육적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번역문 참고 양상에서도 확인되었듯, 학습자들은 번역문을 시험 대비 및 문법 학습을 위한 핵심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ST와 TT를 대조하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번역을 기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개방형 문항에 기술된 학습자 응답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한글 어순에 맞추는 것보다 직독직해처럼 끊어서 번역된 해석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어순이나 단어를 바꾸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직독직해로 변경되었으면 한다”와 같은 응답은 학습자들이 ST 중심의 번역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반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번역문을 참고하고도 글의 논리나 선지의 의미,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를 설명해야 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들은 문맥이 자연스럽게 의미 전달이 명확한 번역을 TT 지향의 번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번역본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호응이 매끄럽고 비문 없이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서술형 응답은 TT 지향 번역에 대한 교사의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기대 규범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Chesterman(1997)은 기대 규범이 독자와 관련 권위자 사이에서 불일치할 경우, 번역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기대와 EBS의 번역 지침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이에 교사가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호하더라도 제도적 규범에 따른 번역문을 활용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와 교사의 기대가 번역 지침과 상충할 경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번역문 활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sup>4</sup> 집단별 TT 및 ST 지향 점수의 평균함을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sup>5</sup> 각 응답자의 문항 응답 중앙값(median)을 사용하여 동일 비율을 계산 및 분석하더라도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영어교육 맥락에서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의 번역문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활용 양상과 인식, 기대 규범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용 번역문이 단순한 보조 자료로 취급되는 기존의 관행을 넘어, 독해 학습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그 교육적 잠재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와 교사는 EBS 교재 번역문을 실제 학습 및 수업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수능뿐 아니라 내신 시험 준비를 위해서 번역문을 자세히 숙지하는 양상을 보였고, 교사들 또한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번역문을 활용하며 모국어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다만 번역문을 그저 해석의 정답지로 인식하는 학습자들의 경향은 병렬 텍스트 활용을 통해 언어 간 구조적 대응 관계를 이해하고, 점차 독립적 해석 능력을 키워가는 학습 경로와는 거리가 있다. 앞서 Yang and Li(2021)의 번역능력 모델에서 제시된 이중언어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번역문 활용 방식은 그 교육적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들은 번역문에 대한 높은 의존 양상을 보이면서도 번역문의 명료성과 독해 실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번역문 활용이 어휘력 향상이나 학습 시간 절약 등의 측면에서 실용적인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해당 번역문이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에 더욱 정밀하게 부응하도록 개선된다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습자와 교사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기대하는 동시에, 원문 요소의 완전한 보존도 중요하게 여기는 다소 상충된 기대 규범을 보였다. 그리고 학습자는 원문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어순의 유지에 중점을 두는 ST 지향 경향을 보인 반면, 교사는 자연스러운 문맥과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는 TT 지향 경향을 보였다. Chesterman(1997)이 지적하였듯, 이러한 기대 규범의 불일치는 번역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번역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학습자의 기대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번역문이 독해 학습 및 교육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집단의 TT 지향성이 학습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은, 교사가 번역문을 의미 전달 및 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 자료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교재 번역문이 병렬 텍스트 형태의 스캐폴딩 전략으로 구현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해당 번역문이 단기적 시험 대비를 위한 암기 도구가 아닌 점진적 독립 읽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적 자원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용 번역은 학습자의 언어 간 인식(cross-linguistic awareness) 및 비판적 문해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Mellinger 2019, Tirkkonen-Conditt 2005), 학습 초기에는 원문 이해를 위한 인지적 지원으로, 점차 원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략적 독해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영어 독해 교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며, 본 연구는 대표적인 독해 교재인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번역문을 중심으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재

번역문 설계 시 학습자와 교사의 기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한 번역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해 난이도가 높은 문장에는 학습자들이 문장 구조 파악 전략을 탑재할 수 있도록 직독직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의역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EBS 번역 지침 또한 교사와 학습자의 실질적 기대 및 활용 방식을 반영하여, '의역은 제한적으로 허용'이라는 원칙이 교육적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번역문이 단순한 시험 대비를 위한 단기적 암기 재료가 아닌, 장기적으로 학습자의 독해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교사 연수 및 교재 개발 단계에서 이에 대한 학습 및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도출된 제언이 방향성 제시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사 대상 설문조사의 표본 수와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바, 향후에는 표본의 규모를 확대하고 연령, 성별, 독해 숙달도 등 변인을 세분화하여 보다 정교하고 강건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번역문 유형에 따른 학습 효과 차이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해석 과정을 반영한 중간언어(interlanguage) 형태의 번역문과 텍스트의 논리적 이해를 지원하는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독해 성과 및 텍스트 이해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습용 번역문이 영어 독해 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용 번역이 단순한 보조 자료를 넘어, EFL 환경에서 학습자의 언어적·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교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경이(Kang, K-Y.). 2015. 외국 아동청소년문학 한국어 출판번역에서의 교육적 기대규범(Educational expectancy norms in the publication translation of foreign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in Korea). 《번역학연구》(*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6(5), 7-37.
- 강동호(Kang, D.). 2020. EBS 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및 읽기 어휘 분석(Vocabulary Analysis of listening and reading texts in 2020 EBS-linked textbooks and CSAT).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0), 679-687.
- 강동호(Kang, D.). 2021. 2021년 EBS 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및 읽기 지문의 어휘 범위(Lexical coverage of listening and reading texts in 2021 EBS-linked textbooks and CSAT).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SEE)*) 14(2), 33-47.
- 김미혜, 이성원(Kim, M. and S. Lee). 2018. EBS 자료와 CSAT 및 영어교과서 어휘 분석(Vocabulary analysis on EBS materials, CSAT, and English textbooks).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4), 417-427.

- 김소정(Kim, S.). 2016. 한국 중등교육과정 내 프랑스어 교육 일환으로서의 번역교육 현황 연구(*Aspects de la pédagogie de la traduction dans le cadre de l'enseignement du FLE au lycée en Corée*).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고려대학교(Université Korea).
- 대한출판문화협회(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23. 2022년 출판시장 통계 연구보고서. [https://member.kpa21.or.kr/kpa\\_bbs/2022%eb%85%84%ec%b6%9c%ed%8c%90%ec%8b%9c%ec%9e%a5-%ed%86%b5%ea%b3%84%eb%b3%b4%ea%b3%a0%ec%84%9c/](https://member.kpa21.or.kr/kpa_bbs/2022%eb%85%84%ec%b6%9c%ed%8c%90%ec%8b%9c%ec%9e%a5-%ed%86%b5%ea%b3%84%eb%b3%b4%ea%b3%a0%ec%84%9c/) (2023년 10월 17일 검색)
- 문해란(Moon, H.). 2017. 교사의 EBS 수능 영어 교재 활용 경험에 대한 연구(A Study on Teachers Experience about Using EB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Prep Book as Teaching Materials).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이화여자대학교(Ewha Womans University).
- 박지은(Park, J-E.). 2017.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와 교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EBS 연계교재의 활용 현황 및 인식(High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Actual Application and Perception of EBS English Reference Materials for the Prepara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한국외국어대학교(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박지은, 임현우(Park, J-E. and H. Lim). 2017. 영어 학습자·교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EBS 연계 교재의 사용 현황 및 체감 효율성(Exploring students' and teachers' use and perceptions of EBS-CSAT English material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1), 31-57.
- 송지현(Song, J.). 2015. EBS 수능영어 연계 교재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A Study on the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EBS English Materials for CSAT).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 안수경, 남원준(An, S and W-J. Nam). 2024. 학부 번역전공생들의 전략적 능력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번역 이론을 통한 전략적 능력 향상 가능성 탐구(A preliminary study on improving the strategic competence of undergraduate translation students: Exploring the potential of translation theory). 《T&I REVIEW》 14(2), 31-66.
- 양수영, 이동주(Yang, S. and D-J. Lee). 2019. 영어 교과서, EBS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읽기 지문에 대한 코퍼스 기반 소재별 어휘 사용 양상 분석(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topic distribution and vocabulary level of textbooks, EBS materials, and CSATs).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4), 711-729.
- 유소연, 최원국(Yoo, S. and W. Choi). 2020. 50만 수험생 교재에 대기업·언론 불신 내용.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0258.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0258.html) (2021년 6월 20일 검색)
- 윤석만(Yoon, S.). 2014. EBS 교재가 '수능 교과서' ... 학생들 답만 달달 외워.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495349> (2019년 3월 8일 검색)
- 이병천, 박영수, 박덕수(Lee, B-C., Y. Park and D. Park). 2015. 수능-EBS 연계 교재의 학교 활용 실태 및 교재 질 제고 방안: 영어 영역과 타 영역의 EBS 연계 교재를

- 중심으로(Toward the way of improving quality and practicality of EBS textbook).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SEE)*) 8(4), 95–117.
- 이상원(Lee, S-W.). 2004.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A Study of Readers' Translation Norms in Korean Translation for Book Publishing). 박사학위논문(Doctoral dissert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이영훈(Yi, Y-H.). 2019. 직역(直譯)의 재발견: 계보학적 탐구(Rediscovery of the literal translation: a genealogical investigation). 《통역과 번역》(*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1(3), 149–180.
- 이정원(Lee, J-W.). 2019. EFL 학습자의 번역에 대한 인식과 번역 전략 사용(EFL learners' perception and strategy use of translation). 《현대영어영문학》(*Journal of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3(1), 133–153.
- 이현우(Lee, H.). 2020. 수능 영어 시험과 수능-EBS 연계 교재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분석: 읽기 시험을 중심으로(Vocabulary analysis of CSAT English tests and CSAT-EBS preparation coursebooks, with reference to the reading tests)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21(3), 48–57.
- 이화자(Lee, H-J.). 2017. 번역문이 제공된 반복적 읽기가 대학생들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repeated reading assisted by translation on college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4), 279–303.
- 조민수, 박은수(Cho, M-S. and E-S. Park). 2016.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수능 연계 교재, 대학 수학 능력 영어 시험의 어휘 수준 및 이독성 비교 연구(A corpus-based analysis of vocabulary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EBS CSAT books, and CSATA).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 215–233.
- 지혜련(Ji, H.). 2017. 수능 영어와 EBS 교재 연계 정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관점(Effectiveness of the EBS Materials-based CSAT policy: Focusing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석사학위논문(Master's thesis), 한양대학교.
- 최효은(Choi, H.). 2016. 한영 특허번역의 품질평가 기준 및 규범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quality assessment criteria and norms of Korean-English patent translation). 《번역학연구》(*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7(2), 213–250.
- 한지수, 이영희(Han, J-S. and Y-C. Lee). 2022. 2022학년도 수능영어의 체감 난이도 상승 요인에 관한 코퍼스 기반 분석(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perceived difficulty increase in the 2022 CSAT English test).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336–354.
- Anderson, J. 1993. Is a communicative approach practical for teaching English in China?: Pros and cons. *System* 21(4), 471–480.
- Anderson, N. 2005. L2 strategy research. In E. Hinkel,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757–772.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ijani, S., M. Khoshsaligheh and M. Reza Hashemi. 2014. Categorization of the fiction translation

- expectancy norms to Iranian undergraduate readership.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1(3), 210–221.
- Chan, L. T. 2015. Post–communicative pedagogies: Revisiting the translation method of teaching English in East Asi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esearch* 7(2), 75–90.
- Chesterman, A. 1997. *Memes of Translation*. John Benjamins.
- Conteh, J. and G. Meier. 2014. *The Multilingual Turn in Languages Education*. Multilingual Matters.
- Choi, S. 2016. Effects of L1 and L2 glosses on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and lexical representation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137–143.
- Cook, G. 2010.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 Argument for Reassessment*. Cambridge UP.
- Directorate General for Translation, European Commission (DGT). 2013. *Studies on Translation and Multilingualism. Translation a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Translation in the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Union*. Publications Office in the European Union.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aa06f9e5-5d27-4c8a-beb0-9abf9d91c179> (Retrieved May 27, 2022)
- Fotos, S. 2005. Traditional and grammar translation methods for second language teaching. In E. Hinkel,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653–67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aspar, N. F. 2009. Translation as a fifth skill in EFL classes at secondary school level. In A. Witte, T. Harden and O. Harden, eds.,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173–180. Peter Lang.
- Göpferich, S. 2009. Towards a model of translation competence and its acquisition: The longitudinal study TransComp. In A. L. Jakobsen and I. Mees, eds., *Behind the Mind: Methods, Models and Results in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11–37. Samfundslitteratur.
- Hsiao, T.–Y. and R. L. Oxford. 2002. Comparing theories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rn Language Journal* 86 (3), 368–383.
- Lamie, J. 2000. Teachers of English in Japa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raining at a crossroads. *JALT Journal* 22(1), 27–45.
- Lavault, E. 1985. *Fonctions de la Traduction en Didactique des Langues: Apprendre une Langue en Apprenant à Traduire*. Dider erudition.
- Laviosa, S. 2014. Core patterns of lexical use in a comparable corpus of English narrative prose. *Meta* 43(4), 557–70.
- Li, D. 1998. 'It's always more difficult than you plan and imagine': Teachers' perceived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communicative approach in South Korea. *TESOL Quarterly* 32, 677–703.
- Mellinger, C. D. 2019. Metacognition and self–assessment in specialized translation education:

- Task awareness and metacognitive bundling.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27(4), 604–621.
- Murphy Odo, D. 2021. A comparison of interlinear and parallel translated texts as scaffolds for L2 reading comprehension.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5(2), 1–19.
- O'Malley, M. and A. U. Chamot.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tega, L. 2014. Ways forward for a bi/multilingual turn in SLA. In S. May, ed., *The Multilingual Turn: Implications for SLA, TESOL, and Bilingual Education*, 32–53. Routledge.
- PACTE. 2000. Acquiring translation competence: Hypotheses and methodological problems of a research project. In A. Beeby, D. Ensinger and M. Presas, eds., *Investigating Translation. Selected Papers from the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Translation*, 99–106. John Benjamins.
- Pintado, L. 2018.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pedagogical translation, and code-switching: restructuring the boundaries. *Language Learning Journal*, 1–21.
- Pym, A. and N. Ayzvazyan. 2017. Linguistic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foreign-language teaching contexts. In K. Malmkjae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nd Linguistics*, 393–407. Routledge.
- Stiefel, L. 2009. Translation as a means to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Witte, T. Harden and O. Harden, eds.,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99–117. Peter Lang.
- Tirkkonen-Conditt, S. 2005. The monitor model revisited: Evidence from process research. *Meta* 50(2), 405–414.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4). John Benjamins.
- van de Pol, J., M. Volman and J. Beishuizen. 2010. Scaffolding in teacher-student interaction: A decade of research. *Educ Psychol Rev* 22, 271–296.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 Watanabe, Y. 1997. Input, intake, and retention: Effects of increased processing on incidental learning of foreign language vocabulary. *SSLA* 19, 287–307.
- Widdowson, H. G. 2014. The role of translation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J. House, ed., *Translat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222–240. Palgrave Macmillan.
- Yang, Z. and D. Li. 2021. Translation competence revisited: Toward a pedagogical model of translation competence. In R. Muñoz Martín, S. Sun and D. Li, eds., *Advances in Cognitive Translation Studies*, 109–138. *New Frontiers in Translation Studies*.
- Yoshii, M. 2006. L1 and L2 glosses: their effects on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0(3), 85–101.
- Yu, L. 200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n China: Progress and promise. *TESOL Quarterly*

35, 194–197.

Zhang, H. and C. Singh. 2025. Scaffold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Languages and Applied Linguistics* 9(2), 89–109.

Zimányi, K. 2017. Gateways into teaching translation in the language classroom: A proposal for audiovisual translation of ‘Coraline’ in EFL/ESOL. *EntreLinguas* 3(2), 336–351.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Korean

적용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Korean

적용 수준(Applicable Level): Secondary